



마담 에르조그의 추억

김남하

대영씨엔이(주) 탈질촉매연구소 소장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 연세대 공업경영 석사

- 한국전력기술 품질보증처장, 품질 기술처장, 기술기준 처장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준처장
- 한양대 기계공학부 강사(발전공학)

- 대영씨엔이(주) 탈질촉매(De-NOx Catalyst)연구소 소장(06~)

연 말이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와 봉급 인상이 최대 관심사인 것
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다. 1981년 12월 어느 날,
동료들이 다들 새해 봉급이 오르게 되었다고 기뻐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와쎈
는 시무룩한 얼굴에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쎈 와쎈! 오늘 기분이 영 아닌 것 같으니 내가 한 잔 살께!” 이렇게 해서
나는 그를 달래기 위해 건물 지하의 선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성격이 활발하
여 다소 털렁대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벗이고, 가족끼리도 왕래할 만
큼 가까운 사이라 봉급이 한 푼도 안 오른다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이레입질서(以禮立秩序)의 프랑스 사회

잔을 건네면서 이럴 때 우리는 상관에 대한 비판을 안주삼아 술로 스트레
스를 풀기 일쑤다. 내가 보기에 자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
으니 우리 상관 에르조그는 이중인격자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내심 그
의 입에서 불평이 터질 것을 기대하며 울고 싶었을 그의 가슴에다 불을 지피
려는 심사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로 아무리 유도를 해도 와쎈의 대답은 한결같이 “마
담 에르조그는 공정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김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배우려고 자네와 기술 파트너가 되
었지만, 나로선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기술만큼 중요한 공부다. 그러

니 지금 자네가 끝까지 상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곡절을 설명해 주어야, 나도 직장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간청을 하니 그는 자기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오늘 일을 빌미로 내가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이 주위에 알려지고, 그것이 그녀의 귀에 들어간다면, 나는 적어도 프랑스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부서장이 바뀐다 해도 그 내용이 다음 부서장에게 인계될 것이고, 이렇게 꼬리표가 붙으면 이 회사에 있는 한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설사 협상을 잘해 30% 더 받는 조건으로 타 회사로 옮겨간다 해도, 3개월 안에 전직 회사의 직속 상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평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은 물론 퇴사 과정에서 회사 규정대로 일을 잘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술되면, 새 직장에서도, 그 다음 직장에서도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난 철퇴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졌다. '바로 이것이 선진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질서구나!' 말로만 들던, 미국과 유럽 사회는 직속 상관이 소속 직원의 진급 및 봉급 사정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되는 계기였고, '법 앞에 질서'라는 용어가 그렇게 강하게 각인되기는 처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주공(周公)이 말한 '예를 갖추어야 사회 질서가 확립 된다'는 '이례입질서(以禮立秩序)'일 것이며, 그제서야 동양의 철학 사상이 오히려 서양 사회의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었다.

연수생 훈련받고 직무 훈련 과정(On-the-job training)으로 처음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프랑스 아줌마가 3개월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하는 것이 아주 낯설게 느껴

졌던 일이 있다. 우리의 정서로는 사표를 내는 즉시 떠나주는 사람이 일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처신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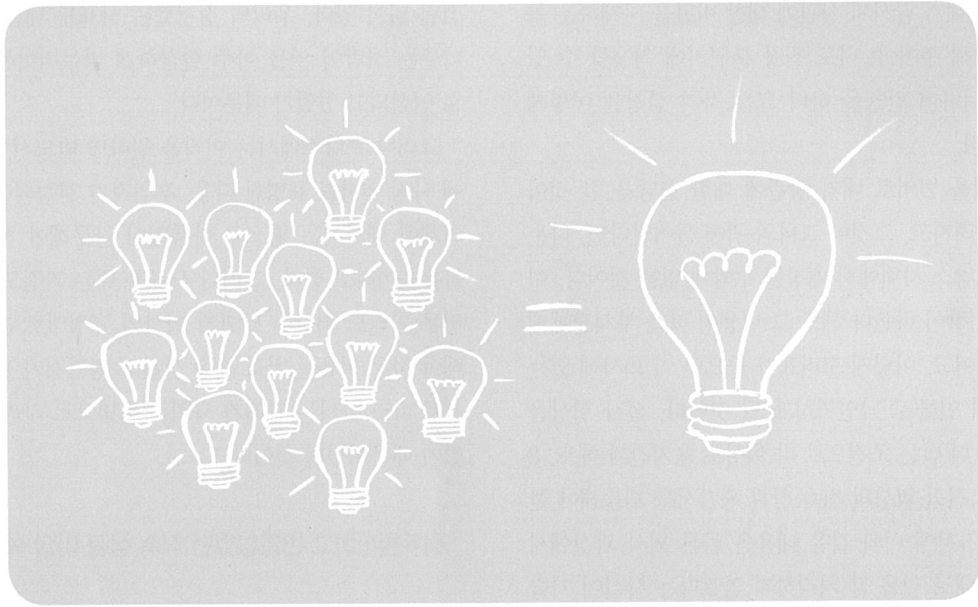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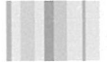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직을 원하면 반드시 3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다음, 후임자가 결정되어 업무가 인계될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표를 내는 과정도 그 후의 업무 처리도 떠나는 날까지 회사의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직속 상관의 평가서가 평생 꼬리표로 따라 다니는 관례가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철두철미하고 빈틈없었던 직속 상관 마담 에르조그

연수생인 나의 감독관이자 상관이었던 마담 에르조그. 매부리코에 필터 없는 독한 담배, 독한 위스키, 독한 에스프레소 커피만 마시는 유태계의 다부진 중년 아줌마! 5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녀는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가장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초인적 모범을 보였던 여장부였다.

스키광이기도 한 그녀는 알프스 산으로 휴가 가서도 급한 업무가 생겼을 때 도중에 돌아와 그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스키를 타러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 시민의 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회사로 들러 잔무를 처리한 다음에야 퇴근하는 그녀의 업무 태도가 또 다른 나의 본보기임을 인식하면서도,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왜 그해야만 하는지를 물었다.

프랑스 사회는 무한 책임 시스템이라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무 중이든, 휴가든, 병가든, 문서에



“30여년도 더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 2,3십대의 젊은 두뇌들과 설계와 연구 결과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보람과 긍지로 하루를 보내는 이 행복감은, 그 시절 남자 이상의 억척 기질과 철두철미한 직업 정신으로 무장된 여자 상관 마담 에르조 그를 닮으려 애썼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감사하며 그녀를 그려본다.”

서명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맡은 업무에서 생긴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부서를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소관 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를 떠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연락하지 마! 내가 봤다고 사인한 것이지 책임지겠다고 사인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나의 전직 상관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었던 그녀의 마음가짐을 지금의 나는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본다.

한국에 출장을 때마다 나를 신라호텔에 불러내어 밥을 사주던 그녀. 1987년 가을 즈음, 오늘 밥 사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울진원전 건설 과정의 소감을 피력하던 것이 생각난다. 건설 현장에서 사업 검토 회의를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공기를 준수해서 제 날짜에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오히려 공기를 8개월이나 앞당기게 됐으니 열정과 집념에 약속같은 근성을 지닌 너를 비롯한 한국기술자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하던 그녀였다.

30여년도 더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 2,3십대의 젊은 두뇌들과 설계와 연구 결과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보람과 긍지로 하루를 보내는 이 행복감은, 그 시절 남자 이상의 억척 기질과 철두철미한 직업 정신으로 무장된 여자 상관 마담 에르조 그를 닮으려 애썼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감사하며 그녀를 그려본다. 그리고 내가 문힐 고향 강릉을 위한 공학도의 길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